

적응기간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

# 키워드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



## 신학기 적응기간(3~4월)에 집중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

“적응기간을 잘 지내면, 1년이 안전해요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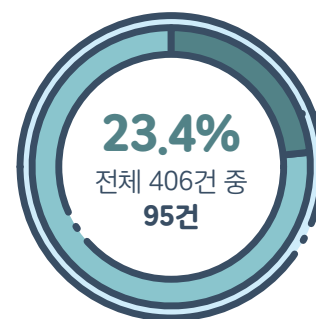
물림



꼬집음,  
할퀴



베임,  
긁힘



화상

\*본 통계는 신학기 적응기간(3~4월)을 분석한 자료이며, 위의 유형 외 다양한 유형(넘어짐, 부딪힘 등)이 있음

### 1 물림

#### 예방

- 놀잇감을 넉넉히 준비하고  
갈등상황 발생 시  
개입하여 중재
- 언어발달이 늦거나  
표현법이 부족한 영유아의  
불안감 및 분노 조절의  
긍정적 모델링 지도

#### 대처

- 피부에 상처가 없으면  
생리식염수나 물로  
깨끗이 씻어주기
-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 
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 
병원 내원

“완영예요”  
안전반

안돼! 내 꺼야!

### 2 꼬집음, 할퀴

#### 예방

- 가정과 연계하여 손톱관리  
철저(교사 역시 손톱 및  
액세서리 주의)
- 영유아의 정서적 상태를  
파악하여 감정 수용 및  
휴식공간 마련

#### 대처

- 찰과상에는  
습윤밴드 부착
- 얼굴은 식염수로 흐르듯  
닦아주기(요오드용액,  
과산화수소수 지양)
- 살점이 패인 깊은 상처는  
흉터가 남지 않도록  
병원 내원(피부과, 성형외과)

### 3 베임, 긁힘

#### 예방

- 일과 시작 전 영유아들이  
직접 가지고 놀이하는  
모든 교재교구의  
안전상태 확인
- 그림책 등 종이에 베일 수  
있으니 주의 필요
- 영유아가 사용할 가위는  
안전가위 또는  
끝이 무딘 가위 사용

#### 대처

- 출혈 부위를 지혈한 후  
흐르는 물로 씻고  
연고와 멸균거즈로  
상처부위 감싸기
- 상처가 깊거나 출혈이  
심하면 외상 부위를  
씻지 말고 신속히 병원 내원

아앗!

### 4 화상

#### 예방

- 뜨거운 음식은  
식혀서 배식
- 보육교사의 뜨거운  
음료 주의  
(커피, 차 등)
- 글루건, 스테이플러 등의  
위험한 도구는 하원시간  
이후 사용

#### 대처

- 물집 제거 및 임의 처치는  
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 
절대 금지(크림, 연고, 로션,  
된장, 소주 등)
- 육안으로 중증도 파악이  
어려우므로  
신속하게 병원 내원

- 어린이집 적응기간 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의 협력은 영유아의 적응을 돕는  
중요한 요인
- 교사는 영유아의 올바른 감정표현이나 안전한 행동을 위한 모델링 필요
- 보육교직원 부주의로 인한 화상 사고 등 환경관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 
않도록 안전 환경 조성

